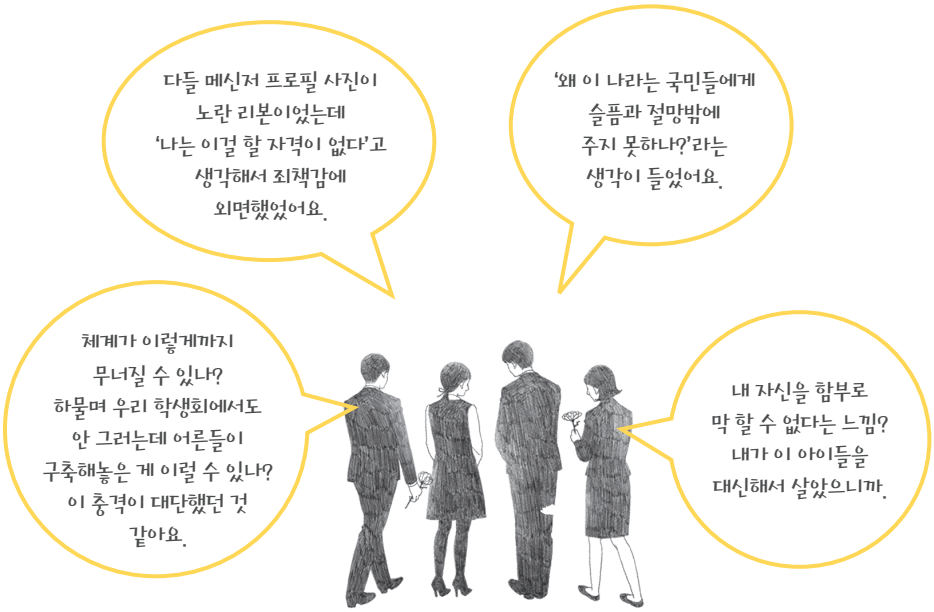
____ 학년 ____ 반 ____ 번 이름 _____

# 5월의 희생과 1980년대의 양심

## 생각열기 우리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




2016년 4월 16일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 한 언론사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이 사건을 겪으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무력감, 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 그리고 내가 세월호에 오른 사람들과 같은 입장일 수도 있었다는 생각 때문에 깊은 부채 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의 마음과 달리 사건 이후 정부는 '단순한 사고일 뿐이며 세월호 인양과 수습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이후 사람들의 양심을 자극하였고 결국 2016~2017년의 대규모 촛불집회로 이어졌습니다.

청소년들이 세월호 사건을 말할 때 사용한 분노, 무력감, 부채의식 등과 같은 단어들은 30여 년 전 청소년들이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때와 비슷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 자료 1 광주, 1980년 5월의 모습

항쟁이 끝난 이틀 후 도청 앞에 있던 129구의 시체가 짐짝처럼 덤프트럭에 실려 망월동으로 옮겨졌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가운데 '장례'는 마치 진짜 '폭도들'의 시체처럼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공포와 불안 속에서 치러졌다.

5월 31일, 계엄사령부는 "광주사태의 전모"를 발표했다. 계엄사는 발표문을 통해 민간인 144명, 군인 22명, 경찰 4명 등 170명이 죽고 민간인 127명, 군인 109명, 경찰 144명 등 380명이 부상했으며 총 1,740명을 체포하였다고 밝혔다. …(중략)… 신군부는 혹독한 고문을 통해 (연행된 사람들의) 범죄 혐의를 일방적으로 조작해 기소하고 군사자판 과정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함으로써 아무 죄가 없는 광주 시민들에게 이중적인 고통을 당하게 했다.

특히 사형선고를 받은 정동년은 혹독한 고문을 당해 조작된 혐의조서에 강제로 서명하고 사형을 받은 것이었다. '광주사태' 관련자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 전날인 1981년 3월 30일 윤공희 대주교는 남동성당에서 열린 월요미사 강론을 통해 '광주사태'와 관련되어서는 어떠한 처벌을 받아서도 안 되며 "광주사태로 인해 구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외쳤다.

『한국민주화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엮음

## 자료 2 전두환 정부의 국민 회유책

1981년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여의도에서는 '국풍 81'이라는 이름 아래 대규모의 예술제가 열렸다. 한국신문협회가 주최하고 KBS, MBC 두 방송국이 운영을 맡은 국풍 81은 여의도 전체를 무대로 민속제, 전통예술제, 젊은이 가요제, 연극제, 학술제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그러나 여의도 주변에서는 국풍 81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반대 시위도 잇달았다. 국풍 81은 대중의 관심을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연예나 오락 등으로 돌리려는 목적을 가진 우민화(愚民化) 정책이었다.

1982년에는 야간 통행 금지가 실시된 지 37년 만에 전면적올 해제되었다. 이와 함께 중고등 학생의 머리 모양과 교복의 자율화, 장발 단속 완화, 해외 여행 자유화 등의 개방 정책도 뒤따랐다. 무력으로 집권한 전두환 정부가 취약한 정치적 정통성을 다른 분야에서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들 조치는 국민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김한종 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교과서

## 한걸음 더 독재 권력 그 이후

1980년대의 사람들은 5월 광주의 희생을 잊지 않고 결국 독재 권력을 끌어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에는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와 있나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하는 여러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은 언제든 퇴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하며 정치인들에 대한 요구 사항을 담은 손피켓을 써 봅시다.

____ 학년 ____ 반 ____ 번 이름 _____

## 대학생 A

대학에 입학한 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소식을 들으며 배우는 것과 현실에 대하여 큰 괴리감을 느낌. 대학 4학년 때에 대학생이라는 것을 숨기고 취업하여(위장취업) 노동 현실을 직접 겪으러 나감. 대학생이라는 것을 숨기는 과정에서 위조 혐의로 경찰서로 연행되었음. 형사는 뒷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성추행을 하며 함께 했던 사람들을 고발하라고 강요하였음. 수치심에 괴로워하다가 다른 여성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형사를 고소하였음. 형사는 자신은 기독교 신자이기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맞고소하였음.

## 정치인 B

신군부가 정권을 잡으면서 민주화운동을 '조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음. 사형선고까지 받아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풀려남. 체포당한 후 신문을 통해 광주에서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났었던 것을 알게 됨. 이후 큰 충격을 받아 단식으로 저항하였음.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인하여 사형이 취소되고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으나 그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재야 정치 세력으로 활동하였음. 이때에 헌법을 바꾸어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선거를 통하여 정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였음.

## 고등학생 C

1980년 고등학교 3학년으로 5·18민주화운동에 직접 참여하였음. 5월 27일 전남도청 앞을 지켰다가 마지막 순간 탈출하였음. 도망 나왔다는 죄책감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하였다가 1년 뒤 다시 복학하였음. 5·18민주화운동 당시 의사나 간호사들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헌신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음. 이에 감명을 받아 의대에 입학하였음. 그러다 간첩단 사건에 엮여 안기부에 들어가 써둔 시나리오대로 선배들과 간첩단으로 활동했다는 답변할 것을 강요당하며 고문과 폭행을 당하였음. 그 이후 14년간 감옥살이를 해야 했음.

## 종교인 D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되어 수배되어 있던 사람을 숨겨주었음. 직접 자수할 수 있도록 도왔으나 범죄자를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구속 위기에 빠졌음. 같은 종교인들이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 종교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라고 옹호하였음. 그러나 결국은 3년간 징역을 받게 되었음. 종교계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조사를 받으며 억울하게 죄를 받고 고문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D는 종교인의 양심으로 보살펴주었을 뿐이라고 항변하였음. 결국 1년 뒤 광복절 특사로 석방되었으며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에 몸을 바치게 되었음.